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년 11월
VOL.

기도월력 283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로마서 10:15 -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지 258건 이상의 박해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목회자들의 임의 구금도 이
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9일 토요일 / 베트남 (44위)

오픈도어 사역자들은 고지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신앙 훈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흐넨은 이 훈련을 통해
성장하며, 여성 지도자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에데족
출신으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두 딸을 믿음 안에서 정성껏 키우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웃의 시선을 피해 몰래 이동해야 할 만큼 종교
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흐넨은 2016년부터 제자 훈련에 참여하
며 성경 공부와 사역에 꾸준히 헌신해 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과
함께하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서로를 위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베트남 소수민족 여성들에게 위로와 소망
의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11월 30일 주일 / 인도 (11위)

자르칸드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간 목회자와 교회가 잇따라 공격받으
며 기독교인 전반에 대한 박해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수천 명
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규탄하기 위해 행진을 벌였습니다. 종교적 극
단주의 세력은 교회의 복음 전파, 교육, 사회봉사 활동을 자신들의 영향
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르칸드에서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기독교인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 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당국이 이전에 석방된 기독교인들에게 새 혐의를 덧붙이며 신앙의 자
유를 억압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4일 월요일 / 멕시코 (31위)

자넬란 마을은 2024년 7월, 카르텔의 위협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강
제로 쫓겨났습니다. 260명이 넘는 주민들이 협박과 억압 속에 집과 땅
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중에는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과거에는 학교에 감금되어 9일간 음식과 물 없이 버티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열악한 환경의 임시 대피소에서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
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5일 화요일 / 스리랑카 (61위)

루와니는 마을에서 가정 교회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 박해를 겪어왔습
니다. 2023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스님과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
으나, 기도로 이를 극복하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8
월, 같은 스님의 주도로 40여 명의 주민들이 다시 교회를 반대하며 예
배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예배는 중단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루와니 가
족을 협박하며 집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루와
니가 절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을에서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 / 튀니지 (34위)

기독교인으로 알려지면 직장과 명예를 잃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
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교회 모
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이주해 온
많은 기독교인이 인종차별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튀니지를 떠났습니
다. 당국의 감시와 공동체의 압력으로부터 개인과 교회 모임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가정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1월 27일 목요일 / 시리아 (18위)

2025년 현재, 북동부에서 쿠르드 당국이 기독교 사립학교 14곳을 폐
쇄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들이 쿠르드 커리큘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학교에서는 약 350명의 기독교 아동이 수업받지 못하
고 있으며, 전체 피해 학생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
드 당국이 더 이상 기독교 학교를 박해 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8일 금요일 / 쿠바 (26위)

기독교인들은 전체주의 정권의 감시와 통제 아래서 신앙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된 상태입니다. 2019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교회 폐쇄, 감시, 투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1월 19일 수요일 / 코트디부아르 (73위)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 신자들은 가족과 공
동체로부터 배척과 폭력을 당하며 신앙을 숨긴 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내전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일부 교회가 공격받
거나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며, 복음 전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박해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길 기도합니다.

11월 20일 목요일 / 지부티 (57위)

인구의 98%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구성된 나라로, 몇 개의 기독교 단체
만이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부족, 및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폭력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
중 집회와 교회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부티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11월 21일 금요일 / 중국 (15위)

최근 북서부 지역의 한 기독교 홈스쿨링 공동체가 수업 중 경찰의 급습
을 받았습니다. 이 소규모 홈스쿨링 공동체는 신앙 중심의 교육을 원하는
기독교 부모들에 의해 수년 전 설립되어, 지금까지 여러 학생에게 꾸준
히 신앙적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급습 이후, 여러 교사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았으며, 학교 운영은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해산되었고, 공동체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중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길 기도합니다.

11월 22일 토요일 / 라오스 (22위)

라오스는 외국인에게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심각한 박해의 땅입니다. 최근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자 당국은 신자
들을 불러 예수를 부인하라고 명령했고, 거부한 이들의 집을 파괴했습
니다. 일부 신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 신앙을 포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천막에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신자들이
박해받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길 기도합니다.

11월 23일 주일 / 이란 (9위)

이란의 세 명의 기독교인 개종자(나세르, 아이다, 요셉)가 10월 21일
테헤란 혁명법원에서 '집회와 공모' 및 '반정부 선전' 혐의로 2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은 기도, 세례, 성찬, 크리스마스 예배 등 일반
적인 기독교 활동이며, 성경도 '금지된 책'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아이다
는 SNS에서 '여성, 생명, 자유' 시위를 지지하고 헤즈볼라 전 지도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셉과 나세르는 과거
에도 복역했으나 사면 후 다시 체포되어 예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11월 1일 토요일 / 라오스 (22위)

라오스 중부의 령 가족은 2024년 12월 예배 후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거부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쌀 55포대를 빼앗기며 1년 생계가 무너졌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과 긴급 식량으로 위로했고,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령 가족의 필요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령 가족은 마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인근 교회로 이동하며 여전히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령 가족이 계속 이동할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11월 2일 주일 / 나이지리아 (7위)

리프카투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자마이 목사와 결혼했으나, 결혼 직후 풀라니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3일 만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700명 이상의 여성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리프카투와 신앙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전 세계 1,700여 명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 방글라데시 (24위)

조바(35)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시택에서 살다가 올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 이웃 성도의 집 베란다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조바가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11월 4일 화요일 /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 중입니다. 강사님, 통역자, 스태프 및 조장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30명의 참석자가 브라더 앤드류가 가졌던 신앙의 유산을 잘 배워 이 세상에서 빛의 전사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5일 수요일 / 인도네시아 (59위)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191명의 신자들이 여섯 마을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받은 이들을 통해 마을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부, 노동자, 상인 등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91명의 신자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압박, 반대 및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길 기도합니다.

11월 6일 목요일 / 아제르바이잔 (52위)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종교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인 50명 이상의 공동 신청이 필요하지만, 이 요건은 소규모 공동체의 활동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숨가잇의 '평화교회를 포함한 여러 개신교 교회는 수개월에서 수년째 등록 신청에 관한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 문제 위원회는 승인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임을 가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종교법이 개정되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7일 금요일 / 중국 (15위)

정부는 성직자의 온라인 종교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18개 조항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성직자는 개인 계정을 통해 설교하거나 종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역, 여름 캠프 운영, 성경 이야기 전파 등도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직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신자들을 위로하거나 성경 구절을 나누는 것조차 법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직자들이 억압 속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8일 토요일 / 요르단 (50위)

기독교 공동체는 일정 부분 감시 대상이며, 공공장소에서 설교하는 것에 관한 제약과 차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 가정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인해 구타, 체포,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9일 주일 / 북한 (1위)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 (2014) 선교사가 억류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및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복송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24년 초 러시아에 구금된 백 모 선교사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 / 쿠바 (26위)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으나, 정부

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강제로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쿠바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 자유 침해의 또 다른 사례로, 교회와 성도들의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도어와 국제 종교 자유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쿠바는 미주 대륙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억압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지역에서 빛과 소금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 스리랑카 (61위)

한 부모 코스타는 세 자녀(14세, 11세, 8세)를 돌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후 마을 사람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목사의 도움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빌려주지 않아, 결국 그의 가족은 정글 속에 임시 거처를 지어 살았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땅 일부를 내주어 그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코스타와 그의 자녀들이 박해받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11월 12일 수요일 / 콩고민주공화국 (35위)

연합민주군(ADF)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이틀 동안 최소 100명의 기독교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엔토요에서는 70명 이상이 살해되고 100명 이상이 납치당했습니다. 포토투에서는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6채의 집과 8대의 오토바이, 2대의 차량이 불탔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13일 목요일 / 어라이즈 아프리카(Arise Africa) 캠페인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이 2025년 현재 3년째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은 2,720,000명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캠페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은 494,901명입니다. 이 캠페인의 최종 목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박해받는 4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가 목표로 하는 100만 건의 청원 운동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박해 실태가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4일 금요일 / 투르크메니스탄 (29위)

대부분 국민은 무슬림입니다(96.2%). 기독교 지도자들은 철저한 감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기독교 자료를 인쇄하거나 수입하는 것, 비공식적인 모임을 하는 것, 심지어 기독교 찬양을 다운로드하는 것만

으로도 벌금을 부과받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기독교인들이 박해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5일 토요일 / 인도 (11위)

2025년 9월 9일, 라자스탄 주의회는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의 조항에는 종신형, 최대 1억 루피(약 1억 5,800만 원)의 벌금, 보석 불가 및 집단 개종 시 재산 몰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개종 목적의 결혼은 무효화되며, 자발적 개종조차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픈도어는 지난 1년 반 동안 라자스탄에서 150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법안 승인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6일 주일 / 팔레스타인 영토 (62위)

10월 13일,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2년 동안 가톨릭과 정교회 교회 건물 안에서 머무르며 전쟁의 위험을 견뎌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과 집을 잃은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의 그리스도인 중 80% 이상이 집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교회 건물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참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7일 월요일 / 키르기스스탄 (47위)

'마랏'(가명은 키르기스스탄의 한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신자입니다. 그는 작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최근 목회자가 방문했을 때 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회자가 이유를 묻자, 마랏은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침묵했지만, 나중에야 자신의 친척과 이웃들이 신앙 때문에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세상에 알리거나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랏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1월 18일 화요일 / 모리타니아 (23위)

이 국가의 최대 종교는 이슬람입니다(99.8%).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하며,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은 당국과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적대감을 받습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는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신자들이 박해 가운데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길 기도합니다.